



EXCLUSIVE USE RIGHT · PRODUCT ANALYSIS

보험료 연동 **페이백** 종신보험 구조 분석

흥국생명 (무)플렉스 리턴100종신보험
보험료 연동 페이백 · 체증 중지 및 물가연동 할인

회사	흥국생명보험
상품	(무)플렉스 리턴100종신보험
심의결과	배타적사용권 2건 각 3개월 부여(2026년 9월 2일 공표)
분석기준일	2026년 9월 7일
분석범위	상품구조 · 유사상품 · 규제해석 · 산출메커니즘 · 리스크 · 개선제안

총평

본 상품은 종신보험의 설계 기준점을 **보장금액에서 보험료로 옮긴** 시도입니다. 회사는 고객이 실제로는 보험료를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상품은 보장금액을 먼저 정하고 보험료를 뒤에 산출한다는 불일치를 개발 배경으로 제시했고,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세 개의 장치를 결합했습니다. 보험료를 생애 소득 곡선에 맞추어 체증시키는 납입 구조, 그 체증을 임의 시점에 멈출 수 있는 옵션, 그리고 납입한 보험료를 노후에 매월 돌려주면서 그만큼 사망보험금을 감액하는페이백 구조입니다.

구조의 완결성은 높습니다. 다만 분석 결과 **상품이 실제로 제공하는 경제적 실질과 제시된 서사 사이에 세 군데의 간극**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페이백은 새로운 급부의 추가가 아니라 사망보험금의 시점 이동이며, 총 수령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물가연동 할인의 연동 대상이 실제 물가지수가 아니라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치이므로 인플레이션 위험을 실제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셋째, 체증 중지 옵션은 계약자에게만 유리한 일방향 선택권이므로 반선택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이 효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상품의 수익성을 좌우합니다.

핵심 판단 5가지

- 1. 제도와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전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본 상품의페이백은 그 제도가 사후 신청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가입 시점에 미리 확정해 둔 형태입니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에 그친 배경도 이 유사성으로 설명됩니다.
- 2.페이백은 무이자 원금 분할 환급입니다.** 납입보험료를 명목 그대로 돌려주고 사망보험금에서 같은 금액을 차감하므로, 계약자가 받는 총액은 가입금액으로 고정됩니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감안하면 명목 환급은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이 차이가 회사의 재원이 됩니다. 반면 유동화 제도의 종신연금형은 장수 시 총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3. 물가연동이라는 명칭이 실질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요약서는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소비자 목표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삼고 현재 2%라고 적었습니다. 이 목표치는 2016년 이후 2%로 유지되어 사실상 상수이며,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는 다릅니다. 목표치가 상향되면 할인폭이 축소되어 계약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 4. 체증 중지 옵션의 반선택 방향이 회사에 불리합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사망보장의 필요가 낮다고 판단한 계약자일수록 체증을 중지하고 보장을 줄일 유인이 큼니다. 반대로 건강이 악화된 계약자는 보장을 유지합니다. 감액 산식이 무선택 사망률로 계산되면 손실이 누적됩니다.
- 5. "보장은 기존과 동일"이라는 표현은 정정이 필요합니다.**페이백이 진행되는 동안 사망보험금은 지속적으로 감액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총 수령액이 동일하다는 것이며, 이 구분이 판매 현장에서 흐려지면 저축성 오인 판매의 소지가 됩니다.



제안 사항 요약

프레임	제안	요지	우선순위
확장	페이백 조기개시 트리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나 중대질병 진단 시 65세 이전이라도 페이백을 즉시 개시하여, 자금이 실제로 필요한 시점과 지급 시점을 일치시킵니다.	1순위
확장	페이백 수령권 배우자 승계	페이백 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잔여 회차를 배우자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2순위
집중	요양 가속형 페이백	요양 진입 이후 구간에 한하여 월 환급액을 2배로 가속하고 그만큼 지급기간을 단축합니다.	1순위
집중	지출 정점 구간 납입 완화	자녀 교육비가 집중되는 구간에 한정하여 납입유예 또는 체증 일시정지를 허용합니다.	2순위
전환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연동	정책 목표치가 아니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실제 소비자물가지수에 할인율을 연동하여 명칭과 실질을 일치시킵니다.	1순위
전환	페이백의 현물 선택권	현금 대신 요양·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로 수령할 수 있는 선택지를 부여합니다.	3순위
재구성	보험료 월급 통장 포지셔닝	사망보장 상품이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가 노후에 월 단위 현금흐름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메시지를 재정 의합니다.	2순위
재구성	지출 곡선 기준 재설계	소득 라이프사이클이 아니라 가계 지출 곡선을 기준으로 체증 구간을 재배치합니다.	3순위

추진 순서 추천

- 1. 1단계(0~3개월).**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연동으로 전환하고, 판매자료에서 보장 동일이라는 표현을 총 수령액 동일로 정정합니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므로 이 기간 안에 후속 차별화를 확정해야 합니다.
- 2. 2단계(3~9개월).** 페이백 조기개시 트리거와 요양 가속형을 추가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통계와 중대질병 발생률을 기존 담보 경험에서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 3. 3단계(9~18개월).** 배우자 승계와 현물 선택권을 도입합니다. 승계는 제2피보험자 구조와 세제 취급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품구조 해부

1.1 세 개의 구조 요소

요소	설계 내용	경제적 실질
체증 납입과 물가연동 할인	가입 후 5년까지는 보험료가 평준이고,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 5%의 체증률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소비자 목표 물가 상승률(현재 2%)과의 차이인 3%를 매월 보험 료에서 할인합니다.	보험료의 시간 배치를 뒤로 미루는 장치입니다. 초기 보험 료를 평준형보다 낮추는 대신 후반 부담을 키웁니다. 할인은 명목 체증률과 실효 체증률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보험료 체증 중지 옵션	5년 경과 이후 계약자가 임의 시점에 체증의 중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보험료 증가를 계속하는 방식(사망보험금 유지)과 체 증을 멈추는 방식(사망보험금 감소)의 두 가지 입니다.	계약자가 보유하는 일방향 선택권입니다. 행사 시 보험료 수입이 줄고 그에 상응하여 가입금액이 조정됩니다.
보험료 연동 페이백	만 65세와 가입나이에 납입기간을 더한 나이 가운데 늦은 시점부터, 납입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매월 환급합니다. 체 증 납입한 순서 그대로 체증 환급합니다. 환급 된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이 자동으로 감소됩니 다.	사망보험금의 조기 인출입니다. 새로운 급부의 추가가 아니 라 지급 시점의 이동이며, 총 수령액은 가입금액으로 고정 됩니다.

1.2 총 수령액 항등식

페이백 구조의 핵심 성질은 다음 항등식으로 요약됩니다. 이 식이 상품 이해의 출발점이며, 5장의 적합성 검정과 6장의 소비자보호 논의가 모두 여기에서 파생됩니다.

$$S_t + \sum_{s \leq t} R_s = S_0$$

S_0 : 가입 시점의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S_t : t시점의 잔여 사망보험금

R_s : s시점에 환급된 페이백 금액이며, 해당 순번에 납입했던 보험료와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와 유족이 합산하여 받는 금액은 시점과 무관하게 항상 가입금액입니다. 페이백을 많이 받으면 사망보험금이 그만큼 줄고, 일찍 사망하면 페이백을 덜 받는 대신 사망보험금을 더 받습니다. 이 구조에서 회사가 실제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유동성, 즉 지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1.3 요약서 서술 가운데 정정이 필요한 부분

"보장은 기존과 동일"이라는 서술

요약서는 보험료를 주요 제약조건으로 보고 그 범위 안에서 보장자산을 최적화하며 보장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1.2의 항등식에서 보듯 페이백이 진행되는 동안 사망보험금은 계속 줄어듭니다. 정확한 표현은 **계약자와 유족의 총 수령액이 동일하다**는 것이며, 보장이 동일하다는 표현은 사망보장의 규모가 유지된다는 오해를 부릅니다. 판매자료와 상품설명서에서는 이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1.4 개발 경과

요약서가 제시한 일정은 2025년 12월 종신보험 시장 현황 분석에서 시작하여 2026년 7월 판매 준비까지 9개월입니다. 표적집단 면접을 통해 니즈를 파악하고 상품 구조를 개발한 뒤, 2026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체증형 설계 시뮬레이션과 체증 중지 옵션 및 가입금액 조정 알고리즘을 개발했으며, 2026년 6월 보험개발원 인가 단계에서 보험료 기반 보장금액 조정 알고리즘과 기초서류를 검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개발 과정에서 회사가 스스로 기록한 논의 내용입니다. 요약서는 보험료 중심으로 보장금액을 정산하는 역발상 연산구조를 논의했고, 보험금 중심으로 계산하는 기존 정산방식을 극복하는 새로운 산출방식을 검토했으며, 향후 시스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금 재산출 시스템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본 상품의 실질적 개발 난이도가 상품 아이디어가 아니라 산출 시스템에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7장의 모방 난도 진단에서 시스템 장벽만이 유의미한 장벽으로 평가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유사 상품 조사

2.1 국내 유사 상품

가) 보장 유사형 — 사망보험금의 생전 활용

구분	제도·상품	본 상품과의 관계
사망보험금 유동화	2025년 10월 5개 생명보험사 선행 도입, 2026년 1월 2일 전 생명보험사 19개사로 확대	가장 직접적인 유사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 납입완료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합니다. 연금형·분할형·일시형을 선택할 수 있고 중단과 조기종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상품은 이 기능을 사후 신청이 아니라 가입 시점에 자동 확정된 스케줄로 내장했습니다.
연금전환특약	대부분의 종신보험에 부가되는 (무)연금전환특약, LTC연금전환특약, 3대질병연금전환특약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전환 시점의 기초서류와 연금 사망률이 적용됩니다. 본 상품은 전환이라는 절차 없이 납입보험료와 사망보험금을 직접 연동시켰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적립금 생활자금 전환	교보생명 교보3밸런스보장보험 PLUS 등	납입 완료 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전환 비율과 시점을 계약자가 선택합니다.

나) 지급방법 유사형 — 보험료 또는 보험금의 체증 구조

회사	상품	체증의 방향
한화생명	제로백H 종신보험	계약 1년 후부터 110세까지 사망보험금이 매년 10%씩 증가합니다. 업계 최장 보장 기간입니다.
교보생명	교보밸류업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체증형입니다.
동양생명 · 신한라이프 iM라이프 · 푸본현대생명	체증형 종신보험 다수	계약 1년에서 5년 후부터 10년에서 20년간 보험금이 20%에서 30%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동양생명은 체증 구조에 연금전환 기능을 결합했습니다.
ABL생명	우리WON더드림종신보험	경과기간에 따라 가입금액의 100%에서 최대 2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시장 대비에서 드러나는 본 상품의 위치

국내 체증형 경쟁은 예외 없이 **사망보험금을 체증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상속·증여 재원 확보라는 소구점이 그 배경입니다. 본 상품은 반대로 **보험료를 체증시키고 사망보험금은 감액**합니다. 즉 시장의 주류가 사망보장의 확대를 팔았다면, 본 상품은 보험료 부담의 이연과 생전 유동성을 팝니다. 표적 고객이 자산가가 아니라 현금흐름 제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라는 점에서 경쟁 지형이 겹치지 않으며, 이 점이 상품의 실질적 차별화 요소입니다.



2.2 일본 및 해외 유사 상품

상품 유형	구조	시사점
일본 아카운트형 보험 (이율변동형 적립종신보험)	적립 부분과 보장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고, 납입 보험료 가운데 적립으로 돌릴 몫과 보장으로 돌릴 몫을 일정 범위에서 자유롭게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유설계형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험료를 먼저 정하고 보장을 조정한다는 발상은 이미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 상용화되었습니다. 다만 구조의 복잡성과 갱신 시 보험료 상승 문제로 현재는 취급이 거의 없습니다. 자유설계형이 실패한 원인이 구조 자체가 아니라 고객의 이해도와 갱신형 특약의 부담이었다는 점은 본 상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일본 수입보장보험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잔여 기간 동안 월 단위 연금으로 지급하며, 경과에 따라 총 지급액이 체감합니다.	사망보장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구조 자체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의 진보성은 감소 구조 자체가 아니라 감소의 재원을 납입보험료에 1대 1로 연동시켜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 에 있습니다.
미국 유니버설 라이프 (flexible premium adjustable life)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면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이 그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보험료를 변수로 두고 보장을 종속변수로 두는 설계의 원형입니다. 다만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연동되므로 계약자가 투자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본 상품과 다릅니다. 본 상품은 정액 차감 방식이어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불확실성이 훨씬 작습니다.
일본 저해약반려금형 종신보험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을 억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춥니다.	국내 저해지환급형과 동일한 구조이며, 요약서가 기존 상품의 한계로 지목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종합 시사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료를 기준으로 두는 설계는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사상이며, 본 상품의 독창성은 사상 자체가 아니라 **그 사상을 투자위험 없이 정액 차감으로 구현한 방식**에 있습니다. 둘째, 일본 아카운트형의 퇴장 경위는 이 계열 상품의 실패 원인이 언제나 복잡성에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본 상품은 세 개의 장치가 동시에 작동하므로, 상품 자체의 정교함보다 **고객이 세 장치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가 성패를 가릅니다.

법률적·규제적 해석

본 상품은 질병이나 의료행위를 사고로 삼지 않으므로 의학적 해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제도 환경과의 정합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3.1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와의 관계

금융위원회 주도로 정부와 주요 생명보험사가 공동 준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2025년 10월 30일 5개 생명보험사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2026년 1월 2일부터 전 생명보험사 19개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제도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은 만 55세 이상의 종신보험 계약자이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계약이 주요 대상입니다.
- 재원은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이므로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일수록 수령액이 큼니다.
- 수령 방식은 연금형, 분할형, 일시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유동화 비율과 기간도 선택합니다.
- 유동화 도중 중단하거나 조기에 종료할 수 있으며 이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 보험사는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청 전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합니다.

비교 항목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본 상품의 차이점
결정 시점	계약 후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가입 시점에 스케줄이 확정됩니다.
재원	해약환급금입니다.	납입보험료이며 사망보험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수령액 결정	적립 수준, 연금사망률,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입했던 보험료와 명목 기준으로 같습니다.
예측 가능성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가입 시점에 확정적으로 계산됩니다.
유연성	중단, 조기종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서상 중단이나 조정에 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장수 대응	종신연금형을 선택하면 장수 시 총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지급기간이 납입기간으로 고정되므로 장수해도 총액은 늘지 않습니다.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의 해석

두 건에 각각 3개월이 부여된 결과는 심의위원회가 독창성과 유용성은 인정하되 **기능적 신규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음을 시사합니다. 위 비교표에서 보듯 생전 유동성 제공이라는 기능 자체는 제도로 이미 전 업권에 열려 있고, 체증형과 연금전환 역시 시장에 존재합니다. 본 상품의 차별성은 기능이 아니라 그 기능을 **가입 시점에 자동화하고 명목 1대 1로 단순화한 구현 방식**에 있으며, 심의 결과는 그 범위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3.2 소비자보호 및 판매 규제 쟁점

1. **저축성 오인 판매의 소지가 큼**. 납입한 보험료를 매월 돌려받는다든 소구는 원금 회수형 저축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 상품은 보장성 상품이며, 환급의 실질은 사망보험금의 선지급입니다.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목적으로 설명하는 판매 관행은 감독당국이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사안이므로, 상품설명서와 판매 화법에 대한 사전 통제가 필요합니다.



2. **체증 보험료의 안내 수준이 중요합니다.** 가입 시점에는 초기 보험료만 인식되지만 실제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 집니다. 납입기간 전체의 예상 보험료 추이표를 청약 단계에서 제시하고, 계약자가 그 추이를 확인했음을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3. **할인 구조의 조건부성이 고지되어야 합니다.** 물가연동 할인이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목표치가 변경될 경우 할인폭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계약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4장에서 다루는 대로 이 부분은 상품 설계의 핵심 불확실성입니다.
4. **보장 감액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페이백 수령 중에는 사망보험금이 매월 줄어듭니다. 유족이 받게 될 금액이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연도별 예시표로 제공해야 합니다.

3.3 회계 및 감독 규제상 취급

- **보험계약마진의 인식 패턴이 뒤로 밀립니다.** 체증 납입은 현금유입을 후반에 집중시키므로, 동일한 수익성이라도 초기 인식이 낮아집니다. 신계약 마진 확보 관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행동 가정이 측정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체증 중지 옵션의 행사율과 행사 시점 분포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직접 반영되며, 경험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가정이 빗나가면 보험계약마진의 조정이 발생합니다.
- **해지위험 측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구간에서 해지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지급여력 제도의 해지위험액과 대량해지 시나리오 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부채 듀레이션은 짧아집니다.** 페이백은 65세 이후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이므로, 사망 시점까지 이연되던 부채의 일부가 앞당겨집니다. 자산부채관리 관점에서는 금리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산출 메커니즘 분석

본 상품은 신규 위험률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위험률 산출 방법론의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료와 급부가 서로를 결정하는 연산 구조를 복원하고, 그 구조에 내재된 가정을 식별합니다.

4.1 보험료 함수의 복원

$$P_t = P_0 \cdot (1 + g)^{\max(t-5, 0)} \quad P_t = P_t \cdot (1 - d_t)$$

P_0 : 가입 초기의 기준 보험료

g : 명목 체증률이며 요약서 기준 5%입니다

d_t : 물가연동 할인율이며 명목 체증률 g 와 목표 물가상승률 π 의 차이에 연동합니다

P_t :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하는 보험료

요약서의 도표는 체증률 5%의 직선과 목표 물가상승률 2%의 직선을 함께 그리고 그 간극을 할인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도해가 성립하려면 **실효 체증률이 2%가 되도록 할인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즉 다음 관계가 성립합니다.

$$1 - d_t = [(1 + \pi) / (1 + g)]^{t-5} \implies P_t = P_0 \cdot (1 + \pi)^{t-5}$$

$t - 5 = 15$ 인 경우 $d = 1 - (1.02 / 1.05)^{15} = 35.3\%$ 가 되어 할인폭이 상당한 규모에 이릅니다

확인이 필요한 세 가지 해석

요약서 문언만으로는 다음 세 해석이 모두 가능하며, 어느 쪽인지에 따라 계약자 부담과 회사 수익성이 크게 달라 집니다.

- 1. 실효 체증률 고정형.** 기초서류의 체증률은 5%이지만 실제 청구액은 항상 2% 체증에 맞추어 할인합니다. 이 경우 5%라는 숫자는 표시상의 기준일 뿐이며, 애초에 체증률 2%로 설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 2. 목표치 연동형.** 할인폭이 한국은행 목표치의 변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표치가 3%로 상향되면 할인폭이 2%p로 줄어 계약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 경우 계약자가 정책 변경 위험을 부담합니다.
- 3. 사업비 절감 환원형.** 5% 체증을 전제로 산출한 보험료에서 회사가 절감한 사업비를 할인 재원으로 환원합니다. 이 경우 할인은 회사의 재량 사항이 됩니다.

세 해석 가운데 어느 것인지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확인해야 확정됩니다. **다만 어느 해석이든 물가연동이라는 명칭은 실질과 어긋납니다.** 연동 대상이 통계청이 공표하는 실제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니라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치이기 때문입니다. 목표치는 2016년 이후 2%로 유지되어 사실상 상수로 기능해 왔으며, 실제 물가가 목표를 크게 웃돌던 구간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약서가 제시한 실질구매력 유지라는 효과는 이 설계로는 달성되지 않습니다.

4.2 급부 함수와 수지상등

$$\sum_t P_t v^t {}_t p_x = \sum_t S_t v^{t+1} {}_t p_x q_{x+t} + \sum_s R_s v^s {}_s p_x + E[\text{사업비}]$$

S_t : t시점의 사망보험금이며 $S_0 - \sum_{u \leq t} R_u$ 로 감소합니다

R_s : s시점의페이백 환급액이며 생존을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v : 예정이율에 따른 할인계수

이 식이 통상의 종신보험과 다른 점은 **급부가 경로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망보험금 S_t 가 이미 지급된 페이백의 누적에 의해 결정되므로, 두 급부를 독립적으로 산출한 뒤 합산할 수 없습니다. 요약서가 밝힌 실시간 재산정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은 바로 이 경로의존성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페이백은 생존을 조건으로 하는 **확정적** 급부인 반면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급부입니다. 동일한 1원을 페이백으로 지급하고 사망보험금에서 1원을 차감할 때, 두 현가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페이백의 지급 현가는 생존확률과 할인계수의 곱으로 결정되고, 사망보험금 감액의 절감 현가는 잔여 사망확률 분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가 이 상품의 수익성을 결정하며, 산출 방법서 없이는 부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목 1대 1 환급이라는 설계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4.3 체증 중지 옵션의 계리적 가격

계약자가 τ 시점에 체증 중지를 선택하면 이후의 보험료 증가분이 사라지고 그에 상응하여 사망보험금이 감액됩니다. 공정한 감액분은 다음 등식을 만족해야 합니다.

$$\Delta S \cdot A_{x+\tau} = \sum_{t > \tau} \Delta P_t \cdot v^{t-\tau} \cdot {}_{t-\tau} p_{x+\tau}$$

ΔP_t : 중지로 인해 포기된 보험료 증가분

ΔS : 그에 대응하는 사망보험금 감액분

$A_{x+\tau}$: $x+\tau$ 세의 종신보험 일시납순보험료

반선택의 방향

이 옵션은 계약자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행사하는 일방향 선택권입니다. 행사 유인을 보유자 특성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사망보장의 필요를 낮게 평가하는 계약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지를 선택할 유인이 큼니다. 반대로 **건강이 악화된 계약자**는 보장을 최대한 유지하려 하므로 체증을 계속 합니다. 결과적으로 옵션을 행사하는 집단의 사망률은 전체 평균보다 낮고, 행사하지 않는 집단의 사망률은 높습니다.

위 등식의 $A_{x+\tau}$ 를 무선택 기준 사망률로 계산하면, 행사자 집단의 실제 A는 그보다 낮으므로 감액분 ΔS 가 과소하게 산정됩니다. 즉 **회사는 포기된 보험료에 비해 너무 적게 감액하게 되며, 그 차액이 누적 손실이 됩니다.** 대응 방법은 옵션 행사 시점의 선택효과를 반영한 조정계수를 감액 산식에 명시하거나, 행사에 최소 유지기간이나 횟수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4.4 필요 데이터와 소스 매핑

필요 데이터	구분	후보 소스	가용성·접근난이도
체증 중지 옵션 행사율과 시점 분포	계약자행동	자사 경험 부재. 납입유예, 감액완납, 연금전환 등 기존 선택권의 행사 경험을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해외 유니버설 라이프의 보험료 조정 경험을 참고합니다.	하 (경험 데이터 전무)
체증 구간 해지율	계약자행동	자사 종신보험 경과기간별 해지 경험, 보험개발원 해지율 통계	중 (체증형 전용 경험은 부족)
페이백 구간 생존율	기초율	보험개발원 경험생명표 및 연금생명표	상
사망률	기초율	보험개발원 참조위험률, 자사 경험사망률	상
목표 및 실제 물가상승률	경제가정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상
계약자 소득 곡선	설계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가계 지출 곡선	설계근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연령대별 교육비 및 소비지출 구조	상



기초 통계 추정 및 정합성 검증

5.1 개발 배경 통계의 검증

요약서는 남자 40세, 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저해지 기준으로 종신보험 월납 보험료가 2000년 93천원에서 2010년 141천원, 2020년 260천원으로 증가했다고 제시하고, 같은 기간 예정이율이 7.5%에서 5.0%, 2.5%로 하락했다고 표시했습니다.

구간	예정이율 변화	보험료 배수	검정 결과
2000 → 2010	7.5% → 5.0%	1.52배	예정이율 2.5%p 하락에 대한 통상적 민감도와 대체로 부합합니다.
2010 → 2020	5.0% → 2.5%	1.84배	저금리 구간에서 민감도가 커지는 성질과 방향이 일치합니다.
2000 → 2020	7.5% → 2.5%	2.80배	예정이율 단독 효과로 추정되는 배수는 대략 2.1배에서 2.2배 수준이므로, 나머지 0.6배에서 0.7배는 다른 요인의 기여로 보아야 합니다.

정합성 판정

같은 기간에 경험생명표가 여러 차례 개정되며 사망률이 개선되었고, 사망률 개선은 보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관측된 2.80배는 예정이율 하락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상품설계 기준 강화와 해약환급금 규제 변화, 사업비 부가 구조의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요약서가 세 요인으로 저금리 추세, 상품설계 기준 강화, 환급률 위주의 과당 경쟁을 함께 제시한 점은 내부적으로 일관됩니다. 다만 그래프에는 예정이율만 라벨로 표시되어 있어 금리 효과만으로 읽힐 소지가 있으므로, 요인 분해를 명시하는 편이 자료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5.2 체증 부담의 정량 추정

실효 체증률이 명목 5%인지 할인 후 2%인지에 따라 계약자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20년납 기준으로 두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표	실효 2% 체증	명목 5% 체증	해석
최종 연도 보험료 배수 (초기 대비)	1.35배	2.08배	명목 체증이 그대로 청구된다면 납입 말기에 보험료가 두 배를 넘습니다.
총 납입액 (초기 보험료 개월분 환산)	271.7개월분	331.9개월분	평균형 240개월분과 비교됩니다.
평균형 대비 초기 보험료 (현가 기준 수지상등)	약 10% 낮음	약 25% 낮음	초기 부담 완화 효과가 명목 체증 쪽에서 훨씬 큼니다.
30년납 최종 배수	1.64배	3.39배	납입기간이 길수록 격차가 급격히 벌어집니다.

예정이율 2.5%를 가정하고 사망·해지를 제외한 단순 현가 비교입니다. 체증은 5년 경과 이후 연 단위 계단식으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득 곡선과의 정합성

요약서의 여정 도해는 결혼과 동시에 입사하는 사회초년생을 상정하고, 5년 뒤 진급으로 연봉이 올라 보험료 부담력이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30세 전후 가입에는 이 서사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40세 가입 20년납이라면 보험료 정점은 55세에서 59세 사이에 형성되고, 30세 가입 30년납이라면 55세에서 60세 사이에 형성됩니다.** 국내 임금 곡선은 대체로 50대 초중반에 정점을 지나 이후 하락하므로, 보험료 정점과 소득 정점이 어긋납니다. 이 어긋남이 체증 중지 옵션을 사실상 필수 옵션으로 만들며, 그 결과 원 설계의 보험료 수입 가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5.3 페이백 수량의 실현을 추정

페이백은 생존을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명목 총액이 그대로 수령되지 않습니다. 40세 가입, 1억원, 20년납, 실효 2% 체증을 가정하여 규모와 실현율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추정값	산출 근거
초기 월 보험료	약 23.4만원	평준형 26만원의 약 90%로 두었습니다.
총 명목 납입액	약 6,360만원	초기 보험료에 271.7개월분을 곱했습니다.
페이백 완료 후 잔여 사망보험금	약 3,640만원 (가입금액의 36%)	1억원에서 총 환급액을 차감했습니다.
페이백 기간	65세부터 85세까지	개시는 65세와 60세 가운데 늦은 시점이고 기간은 납입기간과 같습니다.
생존 기준 평균 수령률	약 75%에서 80%	65세 남성의 잔존 생존확률을 회차별로 가중했습니다.
개시 시점 현가 기준 수령 가치	명목의 약 65%에서 70%	생존확률과 예정이율 2.5% 할인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납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현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30세 가입 30년납이라면 페이백 기간은 65세부터 95세까지가 되는데, 65세 남성이 9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크지 않으므로 생존 기준 평균 수령률은 60% 내외로 낮아집니다. 미수령분은 잔여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므로 총 수령액 항등식은 유지되지만, **매월 돌려받는다는 소구가 실제로 실현되는 정도는 납입기간에 반비례합니다.** 페이백 기간을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고정한 설계는 장기납 계약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8장에서 개시 시점 선택권과 가속 지급을 제안하는 근거가 됩니다.

5.4 물가 가정의 정합성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는 2016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이후 목표를 상회하는 구간이 이어졌고, 2022년에는 5%를 넘었으며 2023년에도 3%대를 기록했습니다.

- 목표치와 실제치의 괴리가 수년간 지속되었으므로, 목표치를 기준으로 한 할인은 실제 물가 변동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 목표치는 사실상 상수로 기능하므로 연동이라는 표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반대로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면 할인폭이 축소되어 계약자 부담이 증가합니다. 계약자가 정책 변경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질구매력 유지라는 상품 효익을 실제로 구현하려면 연동 대상을 통계청이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는 8장 전환 프레임의 첫 번째 제안에 해당하며, 명칭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동시에 경쟁사의 우회 진입 경로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스크 진단

6.1 역선택

리스크. 사망보장의 전통적 역선택은 가입심사로 관리되므로 본 상품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질적 위험은 계약 이후에 작동하는 선택, 즉 체증 중지 옵션의 반선택입니다. 4장에서 확인한 대로 건강한 계약자일수록 중지를 선택하고 건강이 나빠진 계약자는 보장을 유지하므로, 잔존 집단의 사망률이 가정보다 나빠집니다.

대응. 감액 산식에 선택효과를 반영한 조정계수를 넣거나, 옵션 행사 횟수를 계약 기간 중 1회로 제한하고 최소 유지 기간 요건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사 시 간이 건강 확인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계약자 편익을 축소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6.2 모럴해저드

리스크. 급부가 사망과 생존이라는 객관적 사건에 연동되므로 청구 조작의 여지는 작습니다. 다만 페이백 개시 직전 구간에서 계약자의 행동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개시 시점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해지면 해지를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개시를 눈앞에 두고 무리하게 유지하다가 실효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대응. 개시 시점 이전 일정 구간에 대해 납입유예나 보험료 감액 같은 유지 지원 장치를 제공하는 편이 실효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8장의 지출 정점 구간 납입 완화 제안이 이 기능을 담당합니다.

6.3 판매채널 유인

리스크. 의료 공급자가 개입하지 않는 상품이므로 공급자 유인은 판매채널 유인으로 치환하여 보아야 합니다. 체증 형은 초기 보험료가 낮아 판매 저항이 작은 반면, 모집수수료 산정의 기준 보험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채널의 유인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초기 보험료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면 판매 유인이 약해지고, 평준 환산 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하면 실제 유지되지 않는 계약에 대해 과다 지급이 발생합니다.

대응. 수수료 기준을 납입기간 전체의 현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체증 구간 진입 이후의 유지 실적에 연동한 분급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 적합적입니다. 모집수수료 분급 규제 환경과도 부합합니다.

6.4 재보험

리스크. 사망위험 자체는 전통적 재보험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 상품의 고유 위험이 사망위험이 아니라 계약자 행동 위험이라는 점입니다. 체증 중지 옵션의 행사율과 체증 구간의 해지율은 보험위험이 아니므로 통상적 재보험의 인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응. 협상 포인트는 사망위험과 행동위험을 분리하여, 사망위험은 표준 재보험으로 처리하고 행동위험은 자체 보유 하되 자본 관리로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행동위험까지 이전하려면 금융재보험이나 지수연계 구조를 검토해야 하며, 초기 물량이 크지 않다면 비용 대비 효익이 낮습니다.

6.5 규제리스크

리스크. 세 방향에서 발생합니다. 첫째는 저축성 오인 판매에 대한 감독 개입입니다. 매월 돌려받는다는 소구가 광고와 판매 화법에서 강조되면 시정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체증 보험료의 안내 기준 강화입니다. 셋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와의 관계 정리입니다. 동일 계약에 대해 페이백과 유동화가 중복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된다면 순서와 한도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규정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실무 혼선이 발생합니다.



대응. 판매자료의 표현을 총 수령액 기준으로 통일하고, 연도별 사망보험금 추이표와 보험료 추이표를 청약 단계의 필수 안내 항목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유동화 제도와의 중복 여부는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6 데이터리스크

리스크. 체증 중지 옵션의 행사율에 관한 경험 데이터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서는 표적집단 면접으로 니즈를 파악했다고 밝혔으나, 면접에서 확인되는 선호와 실제 행사 행동은 다릅니다. 가정이 빗나가면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바뀌고 보험계약마진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대응. 판매 초기부터 옵션 행사 이력을 별도 항목으로 적재하고, 유사 선택권인 납입유예나 감액완납의 행사 경험을 대리변수로 삼아 가정을 설정하되 민감도 구간을 넓게 잡아야 합니다. 초기 2년에서 3년은 가정 재검토 주기를 연 1 회로 단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쟁사 대응 시나리오

7.1 모방 난도 진단

장벽	수준	판단 근거
데이터 장벽	없음	신규 위험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망률과 생존율은 참조위험률과 경험생명표로 확보되며, 물가 가정은 공표 자료입니다. 경쟁사가 확보해야 할 독점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휴 장벽	없음	외부 기관과의 제휴가 상품 구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장벽	중간	유일하게 실질적인 장벽입니다. 보험료 변동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준비금을 재산정하는 연산 구조가 필요하고, 급부의 경로의존성 때문에 기존 산출 엔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요약서에서 준비금 재산출 시스템을 별도로 고려했다고 밝힌 대목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은 이 진단과 정합적입니다. 대형사는 시스템 개발에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대응할 수 있으므로, 배타적 사용권 종료 시점과 경쟁사의 개발 완료 시점이 거의 맞물립니다. 다만 추종 유인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형사는 이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별도 시스템 투자를 감수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7.2 경쟁사의 대체 진입 경로

- 1. 유동화 제도의 사전 예약형 상품화입니다.** 신규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기존 유동화 기능에 가입 시점의 예약 신청을 없으면, 개발 부담 없이 유사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개연성 높은 경로입니다.**
- 2.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연동입니다.** 본 상품이 정책 목표치를 사용하는 반면 경쟁사가 실제 지수를 사용하면, 명칭과 실질의 일치라는 점에서 우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3. 체증 중지 대신 다른 조정 수단의 채택입니다.** 보험료 감액, 납입유예, 부분 인출 같은 기존 선택권을 조합하면 배타적 사용권의 범위를 피하면서 유사한 유연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4. 사망보험금 체증형과페이백의 결합입니다.** 시장의 주류인 체증형 종신에 페이백을 없으면 상속 재원과 생전 유동성을 동시에 소구할 수 있습니다.

7.3 차단 전략

- 1. 실제 물가지수 연동으로 선제 전환합니다.** 가장 유력한 차별화 반격 지점을 스스로 점유하는 방법이며, 동시에 5장에서 지적한 명칭과 실질의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 2. 페이백에 조건부 트리거를 추가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나 중대질병 진단 시 개시를 앞당기는 기능은 유동화 제도가 제공하지 않는 영역이므로, 제도 대비 우위를 만듭니다.
- 3. 산출 시스템을 자산화합니다.** 실시간 재산정 엔진을 다른 상품 계열로 확장하여 회사의 공통 인프라로 전환하면, 후속 상품의 개발 속도가 경쟁 우위가 됩니다.
- 4. 이해도를 경쟁 무기로 삼습니다.** 일본 아카운트형의 퇴장 사례가 보여 주듯 이 계열 상품의 실패 원인은 언제나 복잡성이었습니다. 세 장치의 상호작용을 한 장으로 설명하는 시뮬레이터를 제공하면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어려운 판매 자산이 됩니다.



상품개선 제안

8.1 원상품 가치 해체

핵심 기능	보험료 부담의 시간 배치를 고객의 생애 소득 곡선에 맞추고, 납입한 보험료를 노후에 월 단위 현금흐름으로 되돌려 주는 기능입니다.
고객 Pain Point	예정이율 하락으로 종신보험 보험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랐고, 그렇게 낸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보험금은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효용을 주지 못합니다. 보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금흐름 제약 때문에 가입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해지하게 됩니다.
제공 가치	사망보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현금흐름의 통제권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가치입니다. 급부의 총량이 아니라 급부 시점의 선택권 이 이 상품이 실제로 파는 것입니다.

이 해체에서 개선의 방향이 도출됩니다. 상품이 파는 것이 시점 선택권이라면, 현재 설계의 한계는 **그 선택권이 충분히 유연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개시 시점은 공식으로 고정되어 있고, 지급기간도 납입기간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사건이 발생해도 앞당길 수 없습니다. 아래 제안은 선택권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8.2 확장 프레임

EXPAND · 01

페이백 조기개시 트리거 특약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나 중대질병 진단이 발생하면 65세 이전이라도 페이백을 즉시 개시합니다. 자금이 실제로 필요해지는 시점과 지급 시점을 일치시키는 시간축 확장입니다.

- 1. 담보 정의.**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거나 약관이 정한 중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연령 요건과 무관하게 페이백을 개시합니다.
- 2. 보장 방법.** 개시 시점만 앞당기고 월 환급액과 총 환급액은 그대로 유지하며, 사망보험금 감액도 동일한 속도로 진행합니다.
- 3. 보장금액 제안.** 별도 보험금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페이백 스케줄을 이동시키므로 추가 급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기 개시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조정 여부만 산출방법서에 반영합니다.
- 4. 대상 고객.** 납입 완료 이전에 요양이나 중대질병이 발생할 위험을 우려하는 40대와 50대 계약자가 주 대상입니다.
-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페이백 개시를 연령이 아니라 사건에 연동한 점에 있고, 진보성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다루지 않는 사건 기반 개시를 구현한 점에 있으며, 유용성은 요양비가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 현금흐름을 공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 6. 위험요소.** 개시가 앞당겨지면 사망보험금 감액도 빨라져 유족 보장이 축소되므로, 조기 개시 선택 시 그 효과를 명시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요양 등급 판정률이 가정보다 높으면 부채 듀레이션이 예상보다 짧아지므로 자산부채관리에 반영합니다.

3-게이트 점검 · 신규성: 유동화 제도와 기존 상품에서 사건 기반 개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데이터 실현가능성: 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률은 공단 통계로 확보 가능하고 중대질병 발생률은 자사 경험에 있습니다. · 구조 건전성: 확인서 요건과 자산부채관리 반영을 내장했습니다.



EXPAND · 02

페이백 수령권 배우자 승계 옵션

페이백 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잔여 회차를 배우자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보장 대상자의 확장입니다.

- 1. 담보 정의.** 페이백 개시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가 사전에 지정한 배우자가 잔여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잔여 페이백 회차를 승계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합니다.
- 2. 보장 방법.** 승계를 선택하면 잔여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남은 회차의 월 환급을 계속하며, 승계 기간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잔액을 상속인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3. 보장금액 제안.** 총액은 변하지 않고 지급 형태만 달라지므로 추가 보험료 부담은 최소화됩니다.
- 4. 대상 고객.** 유족의 생활비 관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계약자와 고령 배우자를 둔 계약자가 대상입니다.
-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사망보험금의 수령 형태를 유족이 선택하도록 한 점에 있고, 진보성은 일시금 수령 후의 자산 관리 부담을 상품 안에서 해결한 점에 있으며, 유용성은 고령 유족의 목돈 관리 위험을 줄인다는 점에 있습니다.
- 6. 위험요소.** 승계 구조는 상속 및 증여 세제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급기간이 길어지면 관리비용이 늘어나므로 최소 승계 금액 기준을 둡니다.

3-게이트 점검 · 신규성: 사망보험금 분할지급 특약은 존재하나 페이백 회차 승계 형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데이터 실현가능성: 상. 배우자 생존율은 경험생명표로 확보됩니다. · 구조 건전성: 세제 검토와 최소 금액 기준을 내장했습니다.

8.3 집중 프레임

FOCUS · 01

요양 가속형 페이백

요양 진입 이후 구간에 한정하여 월 환급액을 두 배로 가속하고 그만큼 지급기간을 단축합니다. 고비용 구간에 자원을 집중하는 설계입니다.

- 1. 담보 정의.** 페이백 수령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이후 회차의 월 환급액이 기존의 2배로 증액되고 잔여 회차 수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2. 보장 방법.** 총 환급액과 사망보험금 감액 총량은 변하지 않으며 지급 속도만 달라집니다.
- 3. 보장금액 제안.** 가속 배수는 2배를 기본으로 하고 3배 선택형을 옵션으로 둡니다.
- 4. 대상 고객.** 요양비 부담을 우려하는 65세 이상 수령자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급부의 총량이 아니라 속도를 사건에 연동한 점에 있고, 진보성은 별도 보험료 없이 지급 프로파일만 조정하여 효용을 높인 점에 있으며, 유용성은 요양비가 집중되는 구간에 현금흐름을 몰아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 6. 위험요소.** 가속으로 사망보험금이 빠르게 소진되므로 유족 보장 축소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요양 판정 이후 조기 사망이 많으면 회사 부담이 늘어나므로 요양 상태별 사망률 가정을 별도로 설정합니다.

3-게이트 점검 · 신규성: 확인되지 않습니다. · 데이터 실현가능성: 중. 요양 진입 후 사망률은 공단 자료와 자사 장기요양 담보 경험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구조 건전성: 별도 사망률 가정과 안내 요건을 내장했습니다.

FOCUS · 02

지출 정점 구간 납입 완화 옵션

자녀 교육비가 집중되는 구간에 한정하여 납입유예 또는 체증 일시정지를 허용합니다. 해지가 실제로 발생하는 지점을 정확히 겨냥한 제안입니다.

- 1. 담보 정의.** 계약자가 지정한 최대 3년 구간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거나 체증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 2. 보장 방법.** 유예 기간의 보험료는 이후 납입기간에 분산 가산하거나 사망보험금 감액으로 정산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하게 합니다.
- 3. 보장금액 제안.** 유예 한도는 총 36개월로 하고 계약 기간 중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 4. 대상 고객.**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자녀 교육비 부담 구간에 있는 계약자가 대상입니다.
-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체증 중지라는 영구적 선택 외에 일시적 완화 수단을 추가한 점에 있고, 진보성은 해지가 집중되는 구간을 데이터로 특정하여 대응한 점에 있으며, 유용성은 계약 유지율을 직접 개선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 6. 위험요소.** 유예가 습관화되면 실질 납입기간이 길어지므로 사용 횟수와 기간에 상한을 둡니다. 유예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보험금 처리 기준을 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3-게이트 점검 · 신규성: 납입유예 제도는 존재하나 체증 일시정지와 결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데이터 실현가능성: 상. 연령대 별 교육비 지출은 가계동향조사로 확인 가능합니다. · 구조 건전성: 사용 상한과 사고 시 처리 기준을 내장했습니다.

8.4 전환 프레임

TRANSFORM · 01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연동형 할인으로 전환

할인율의 연동 대상을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치에서 통계청이 공표하는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로 바꿉니다. 명칭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구조 전환입니다.

- 1. 담보 정의.** 직전 1년간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기준으로 매년 할인율을 재산정하며, 실효 체증률이 실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도록 설계합니다.
- 2. 보장 방법.** 실제 물가가 목표를 밑돌면 할인폭이 커져 계약자 부담이 줄고, 물가가 높으면 할인폭이 줄어드는 대신 보장의 실질 가치 유지 논리가 성립합니다.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연간 조정 폭에 상하한을 둡니다.
- 3. 보장금액 제안.** 연간 조정 폭의 상한을 3%p, 하한을 0%로 설정하고 누적 조정 한도를 별도로 둡니다.
- 4. 대상 고객.** 장기 계약의 실질 가치를 중시하는 계약자 전체가 대상입니다.
-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보험료 할인을 공표 지수에 직접 연동한 점에 있고, 진보성은 상품 명칭과 실제 작동 방식을 일치시킨 점에 있으며, 유용성은 계약자가 부담하는 정책 변경 위험을 제거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 6. 위험요소.** 물가 변동이 회사의 보험료 수입 변동으로 직접 전이되므로 상하한과 누적 한도로 변동성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수 연동은 안내 난이도를 높이므로 계약자 시뮬레이터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3-게이트 점검 · 신규성: 국내 보험료 할인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데이터 실현가능성: 상. 지수는 매월 공표됩니다. · 구조 건전성: 상하한과 누적 한도를 내장했습니다.

TRANSFORM · 02

페이백의 현물 선택권

현금 환급 대신 요양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현물로 받는 선택지를 부여합니다. 서비스 결합형 제안입니다.

- 1. 담보 정의.** 페이백 수령자가 월 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휴 기관의 방문요양, 건강검진, 재활 및 운동 프로그램 이용권으로 전환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보장 방법.** 전환 비율은 연 1회 변경할 수 있게 하고, 현물 선택 시 일정 비율의 추가 이용 혜택을 제공합니다.
- 3. 보장금액 제안.** 현물 전환분에 대해 10% 상당의 이용 가산을 부여합니다. 회사가 대량 구매로 확보하는 단가 차이가 재원이 됩니다.
- 4. 대상 고객.**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고령 수령자와 자녀와 떨어져 사는 계약자가 대상입니다.
-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페이백을 현금과 현물 사이에서 선택하게 한 점에 있고, 진보성은 급부의 형태를 계약자의 생활 필요에 맞춘 점에 있으며, 유용성은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확보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 6. 위험요소.** 제휴 기관의 지역 편중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제공 지역은 현금 수령을 기본으로 유지합니다. 현물 급부의 회계 및 세제 처리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3-게이트 점검 · 신규성: 종신보험 급부의 현물 전환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데이터 실현가능성: 중. 서비스 단가와 이용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구조 건전성: 지역 형평성 장치와 회계 검토 요건을 내장했습니다.

8.5 재구성 프레임

REFRAME · 01

보험료 월급 통장으로의 포지셔닝

담보 구조는 그대로 두고 상품의 서사를 바꿉니다. 사망보장 상품이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가 노후에 월 단위로 돌아오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 1. 담보 정의.** 구조 변경은 없으며, 상품 안내의 기본 단위를 가입금액에서 월 환급액으로 바꿉니다.
- 2. 보장 방법.** 청약 단계의 첫 화면을 "65세부터 매월 얼마를 돌려받는가"로 구성하고, 사망보험금은 그에 따른 결과값으로 제시합니다.
- 3. 보장금액 제안.** 월 환급액 50만원형, 80만원형, 100만원형 같은 표준 설계안을 제시하여 고객의 선택 부담을 줄입니다.
- 4. 대상 고객.** 노후 현금흐름을 우선 고려하는 30대와 40대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상품의 표시 단위를 보장금액에서 현금흐름으로 전환한 점에 있고, 진보성은 회사가 개발 배경으로 삼은 보험료 중심 설계 사상을 판매 단계까지 일관되게 관철한 점에 있으며, 유용성은 고객이 이해해야 할 숫자를 하나로 줄인다는 점에 있습니다.
- 6. 위험요소.** 현금흐름을 앞세우면 저축성 오인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사망보험금 감액 추이표를 같은 화면에 반드시 병기하고 보장성 상품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3-게이트 점검 · 신규성: 표시 단위의 재정적이므로 별도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 데이터 실현가능성: 상. 기존 산출로 역산이 가능합니다. · 구조 건전성: 감액 추이표 병기를 필수 요건으로 내장했습니다.



가계 지출 곡선 기준의 체증 구간 재설계

체증의 기준을 소득 라이프사이클이 아니라 가계 지출 곡선으로 바꿉니다. 5장에서 확인한 소득 정점과 보험료 정점의 어긋남을 구조적으로 해소합니다.

- 1. 담보 정의.** 체증 구간을 단일 구간이 아니라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자녀 교육비가 집중되는 구간에는 체증을 적용하지 않는 설계를 기본형으로 제시합니다.
- 2. 보장 방법.** 가입 시 계약자가 자녀 연령을 입력하면 교육비 정점 구간을 자동으로 산정하여 체증 스케줄을 생성합니다.
- 3. 보장금액 제안.** 총 납입 현가는 기존 설계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배분만 달라지도록 산출합니다.
- 4. 대상 고객.** 자녀를 둔 30대와 40대 계약자가 주 대상이며, 무자녀 가구에는 기존 단일 체증형을 제시합니다.
-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체증 스케줄을 가구 구성에 맞추어 개인화한 점에 있고, 진보성은 통계로 확인되는 지출 구조를 상품 설계에 직접 반영한 점에 있으며, 유용성은 해지가 집중되는 구간의 부담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 6. 위험요소.** 스케줄이 계약마다 달라지면 관리 복잡성이 커지므로 표준 유형을 세 가지에서 네 가지로 제한합니다. 가구 구성 변화에 따른 재설계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 가능 횟수를 정합니다.

3-게이트 점검 · 신규성: 확인되지 않습니다. · 데이터 실현가능성: 상. 연령대별 교육비 지출 구조는 공표 통계로 확인됩니다. · 구조 건전성: 표준 유형 제한과 변경 횟수 제한을 내장했습니다.

8.6 추진 순서 추천

단계	대상	준비사항
1단계 0~3개월	실제 물가지수 연동 전환, 보험료 월급 통장 포지셔닝, 판매자료 표현 정정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므로 이 구간에 후속 차별화를 확정해야 합니다. 총 수령액 동일이라는 표현으로 판매자료를 통일하고, 연도별 사망보험금 추이표를 청약 필수 안내 항목으로 편성합니다.
2단계 3~9개월	페이백 조기개시 트리거, 요양 가속형, 지출 정점 납입 완화	장기요양 등급 판정률과 요양 진입 후 사망률을 공단 통계와 자사 담보 경험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조기 개시가 부채 듀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자산부채관리 계획에 반영합니다.
3단계 9~18개월	배우자 승계, 현물 선택권, 지출 곡선 기준 재설계	승계는 상속 및 증여 세제 취급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물 선택권은 제후 네트워크의 지역 커버리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개인화 스케줄은 산출 시스템의 확장을 전제로 합니다.

9.1 제도 및 규제 자료

- 금융위원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관련 자료. 2025년 10월 30일 5개 생명보험사 1차 출시, 2026년 1월 2일 전 생명보험사 19개사 확대. 만 55세 이상, 해약환급금 재원, 연금형·분할형·일시형 선택, 중단·조기종료·재신청 가능, 비교안내 시스템 제공.
-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배타적사용권 신청사항 및 심의결과 공시. 본 건은 보험료 연동페이백 구조와 보험료 체증 중지·물가연동형 보험료 할인제도에 대하여 각각 3개월 부여, 2026년 9월 2일 공표.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6]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 2016년 이후 유지).
-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가계동향조사.

9.2 시장 및 경쟁 자료

- 체증형 종신보험 경쟁 현황. 한화생명 제로백H 종신보험(1년 후부터 110세까지 매년 10% 체증), 교보생명 교보별류업종신보험, 동양생명·신한라이프·iM라이프·푸본현대생명의 체증형 상품군, ABL생명 우리WON더드림종신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200%).
- 복합형 종신보험 전환 흐름. 교보생명 교보3밸런스보장보험 PLUS 등 납입 완료 후 적립금의 생활자금 전환 구조.
- 흥국생명 2026년 배타적사용권 획득 현황. 전립선암 생분해성 물질주입술 보장특약 6개월 포함 연간 3건.

9.3 해외 비교 자료

- 일본 이율변동형 적립종신보험(아카운트형·자유설계형). 적립 부분과 보장 부분의 배분을 계약자가 조정하는 구조이며, 복잡성과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 상승 문제로 현재는 취급이 거의 없습니다.
- 일본 수입보장보험. 사망보험금을 월 단위 연금으로 지급하며 경과에 따라 총액이 체감합니다.
- 미국 유니버설 라이프(flexible premium adjustable life). 보험료 납입 규모와 시기의 조정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이 재산정됩니다.

9.4 계리 및 산출용 데이터 소스

- 보험개발원 경험생명표, 연금생명표, 참조위험률.
- 보험개발원 해지율 통계 및 자사 종신보험 경과기간별 유지 경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 판정 통계.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및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9.5 분석의 한계

- 본 분석은 개발과정 요약서와 공개 자료만을 근거로 하며, 약관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물가연동 할인의 정확한 산식, 체증 중지 옵션의 감액 산식,페이백의 이자 반영 여부는 산출방법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4장의 할인 구조 해석은 요약서 도해에 근거한 추정이며, 세 가지 해석 가운데 어느 것이 실제 설계인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5장의 보험료와페이백 규모 추정은 예정이율 2.5%와 단순 현가 가정에 기초한 개략 추정이며, 사업비와 해지환급금 구조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치는 회사의 산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물가상승률 실적치는 2024년까지의 공표 자료를 기준으로 서술했으며, 이후 수치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